



본 소식지는 환경을 생각해 FSC인증 친환경종지로 만들었습니다.

효원DIN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vol. **54**
2023. 06

특집 기사

미리내 열람실 '아카데미아' 개관
IBBY 모두를 위한 책 특별전

사서고생

한 권의 책이
서가에 꽃히기까지

도서관 200% 이용하기

학습·연구정보가이드
연구력 지표 이해와
기본 활용 교육

책 읽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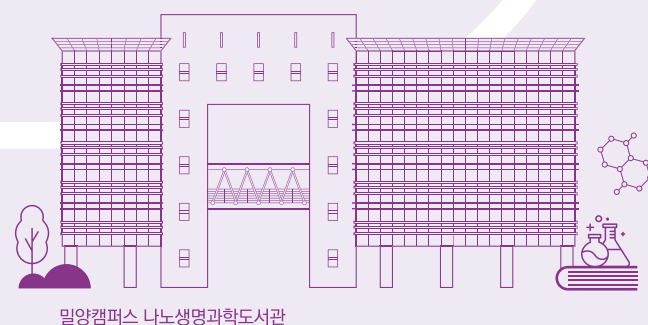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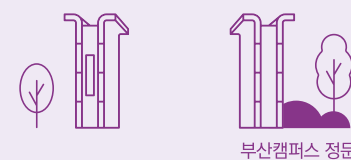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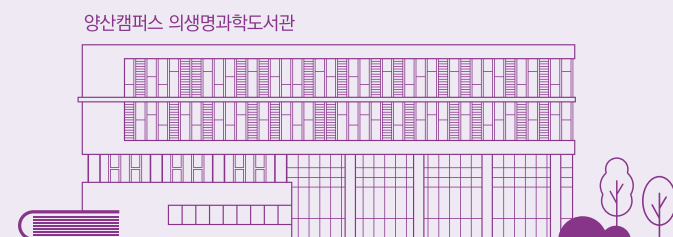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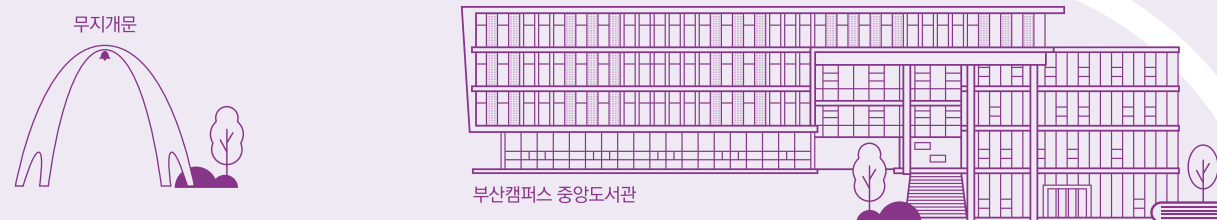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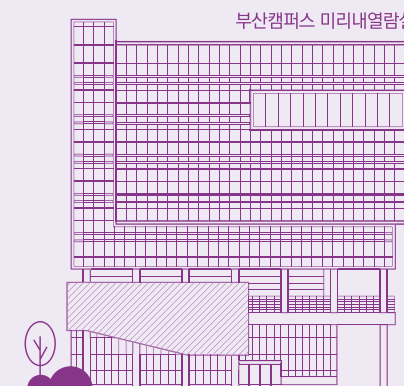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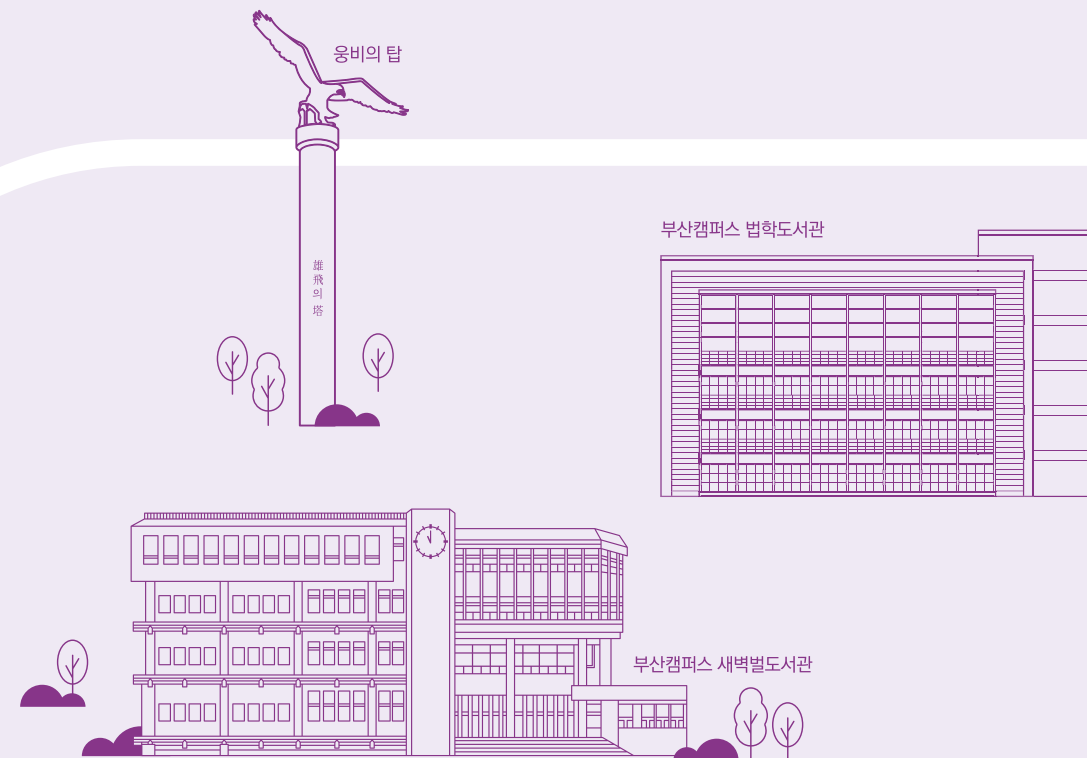
Book Talk 알아보기

여기 issue

Chat GPT의 시대

#발견 #이곳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효원IN도서관 Vol. 54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발행처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행인 이용재

발행일 2023.06.16.

편집 강승일, 김유경, 문민지, 이소현, 허은정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2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library.pusan.ac.kr

홈페이지 http:// lib.pusan.ac.kr

디자인 (주)캡스앤디컴퍼니 051-911-9890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똑똑, 문을 열다

Contents

- 04 **특집 기사**
미리내 열람실 '아카데미아' 개관
IBBY 모두를 위한 책 특별전
- 08 **사서고생**
한 권의 책이 서가에 꽃이기까지
- 10 **도서관 200% 이용하기**
학습·연구정보가이드
연구력 지표 이해와 기본 활용 교육
- 16 **책 읽는 대학**
Book Talk 알아보기
- 18 **여기 issue**
Chat GPT의 시대
- 20 **#발견 #이곳**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 22 **시선집중**
도서관의 날
세상의 모든 시학
박종근 박사 문고 설치 11주년 기념 학술행사



미래열람실 아카데미아 개관

22년 1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24시간 열람실이 새벽별도서관 2층 '새벽 별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단장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어, 23년 3월 건설관에 위치한 미래열람실이 대학원생들과 강사들을 위한 연구 공간 In(人)novation Park '아카데미아'로 탈바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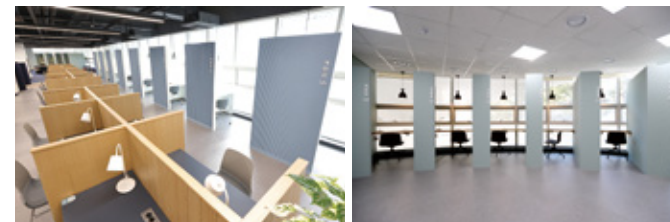
미래내 열람실이 위치한 건설관은 1966년에 신축한 중앙도서관 자리이다. 구도서관, 자율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 곁에 있었다. 지금은 건설관의 일부가 되었지만, 최초의 도서관이 위치했던 자리이니만큼 매우 의미가 깊은 공간이다.

교육몰입도 증진을 위해 구축된 '아카데미아'는 고대 그리스 플라톤(Platon)이 설립한 학교 명칭에서 차용했으며 학자들의 공동체이자 그리스 최초의 학교였던 아카데미아가 인류를 위한 지혜의 샘이었던 것처럼 미래내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부산대학교 연구자들의 미래를 여는 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장시간 연구에 피로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컬러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가구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톤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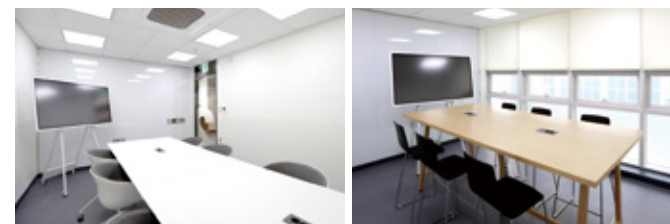
캐럴실

장시간 몰입형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과 강사를 위해 칸막이와 가벽을 활용한 캐럴실 위주의 1인 열람 공간 위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각 자리에 설치된 색상과 밝기가 조절되는 기능성 조명을 활용하여 개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다.



스터디룸

7개 스터디룸에는 협업형 연구와 과제를 위한 글라스보드 스마트 칠판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3가지 타입의 책상과 의자 스타일 중 선호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세미나실

대학원생 및 강사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를 위해 전용 세미나실을 설치하였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하는 대규모 이용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iBBY 모두를 위한 책 국내 첫 특별전

세계 26개국에서 만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도서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해 전 세계에서 제작된 특별한 도서를 모아 전시하는 'IBBY 모두를 위한 책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5월 1일부터 19일까지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전시의 주제인 'I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모두를 위한 책(Outstanding book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전 세계의 모든 독자



5월 1~19일 부산대 중앙도서관 1층에서
26개국 40종 장애인 책 모아 전시회 개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의 국제 프로젝트
2021 선정 도서 국내 첫 전시회



프랑스·튀르키예·슬로베니아 등
점자책·수화책·픽토그램책 등 특별한 책 경험 제공

들에게 의미 있는 책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모든 이를 위한 책의 출간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책 선정은 2년 주기로 이뤄지며, 이번 전시는 2021년 선정 도서 40종이 한국을 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순회전으로 부산대 도서관이 첫 번째로 진행했다.

부산대 도서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모두를 위한 책' 영문 카탈로그를 번역해 한국어판으로 제작했다.

- 이번 전시에서는 튀르키예·이란·우크라이나·슬로베니아 등 흔히 만나기 어려운 국가들의 도서를 포함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출판된 도서 40종이 소개되었다.

전시는 △점자책·수화책·픽토그램책 등 특별한 형태의 도서 △다양한 연령과 능력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도서 △장애를 가진 인물을 묘사하는 도서 카테고리 구성되었다.

전시 도서 중 프랑스에서 출간된 『Les trois petits cochons(아기돼지 삼형제)』는 전통적인 이야기를 픽토그램(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과 삽화를 사용하여 재해석한 책이다. 책의 왼쪽 페이지는 흑백 픽토그램과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파스텔톤의 알록달록한 삽화가 그려져 있다. 특히 오른쪽 페이지에 삽화를 가릴 수 있는 덮개를 달아 독자가 텍스트에 집중할 다음 삽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색채 자극을 방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책이다.

또, 슬로베니아에서 제작된 『David: Misija Mogoče(데이비드 : 임무수행 가능)』은 청각장애인 주인공이 외계인을 만나는 내용을 수화 삽화로 담았다. 각 페이지마다 해당 페이지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으로 연결된 QR코드가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도서 40종에는 한국에서 출판된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 당신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들 이야기』도 포함됐다. 이 책은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11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글을 쓰고 삽화를 그려 넣은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희망하는 저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 도서 전시와 함께 점자판을 활용해 자신의 점자카드를 만들 수 있는 체험존도 함께 운영되었다. 점자의 의미와 표기법에 따라 관객들은 저마다의 메시지를 점자로 작성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지금 우리 도서관은?

사서고생

한 권의 책이
서가에 꽂히기까지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의 학습·연구 및 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매달 3,000권 정도의 국내·외 도서를 발 빠르게 구입하여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대출하는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도착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자료 선정

도서관 자료개발팀에서 학내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문적 자료, 이용자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양서적 등을 소장 가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주요 대학 또는 출판사 출판정보, 저명한 기관의 추천 목록 등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자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주문

선정된 자료는 우리 도서관과 계약된 도서 업체를 통해 주문하게 된다.

자료 배송 기간 국내서(1-2주) / 국외서(약1-2개월)

※ 자료의 유통, 배송 상황에 따라 자료 도착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자료 도착

도서관으로 납품된 신착 자료는 등록실에서 검수(납품도서 및 불량품 확인), 등록번호 부여, 1차 장비처리(장서인·측인 날인, 등록번호 부착 등)를 거친 후 자료조직팀으로 전달된다.

자료 정리

자료조직팀에서 도서분류번호 부여, 주제어 입력 등 도서정보데이터 생성 및 2차 장비처리(책등 분류번호 레이블 부착)를 완료 한 후 주제자료관으로 전달한다.

자료 배가

주제자료관으로 전달된 자료는 대출가능 상태가 되어 책등에 부착된 분류번호 레이블에 따라서 서가에 꽂히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이용자는 신착 자료와 처음 만나게 된다.

TIP 원하는 도서가 없다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희망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은 도서관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1인당 신청 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자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도서는 신속한 이용을 위해 우선정리를 요청하여 대출(이용) 우선권을 일정 기간 보장받을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하기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 인 후 ①MY 아이콘 → 자료신청 현황의 ②희망도서 → ③출판정보 검색신청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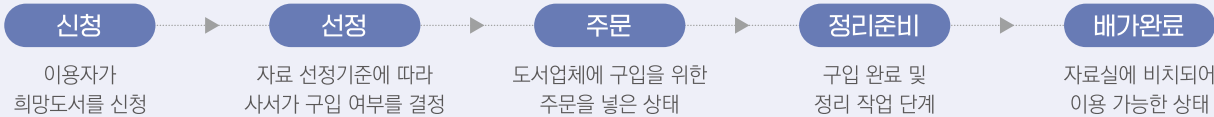
“교보문고 희망도서 서비스”페이지에 접속하여 ④분야별 보기를 선택하여 주제별 자료를 검색하거나 직접 제목이나 저자를 검색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원하는 자료의 우측에 표시된 ⑤도서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

희망도서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는 ②희망도서 페이지에서 ⑥처리 결과로 확인 가능.

※ 교보문고 희망도서 서비스 페이지에서 원하는 결과가 없는 경우 [직접 신청]을 통해 도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희망도서 처리결과 안내



희망도서 처리결과가 정리준비 상태가 되면 알림톡과 이메일을 통해 우선정리 신청 가능 알람이 발송된다. 안내에 따라 우선정리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정리가 완료된 후 바로 대출할 수 있다.

도서관 200% 이용하기

지식이 샘솟는다 학습·연구정보가이드



“이번 학기에는 어떤 수업을 수강하면 좋을까?” “수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는데 어디서 찾으면 좋지?” “논문은 어떻게 쓰고 참고자료는 또 어떻게 찾지?”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고민이다. 우리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최적의 정보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양질의 학습·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AM 가이드(학습·연구 정보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가라사대 “앞으로는 SAM 가이드를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SAM 가이드란?

‘SAM 가이드’는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과 과제 그리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선별·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연구정보 지원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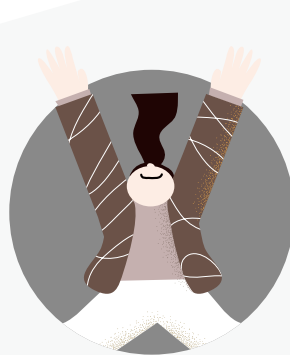
학습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과 과제수행에 관련된
도서, 논문, 사이트, 동영상 자료 제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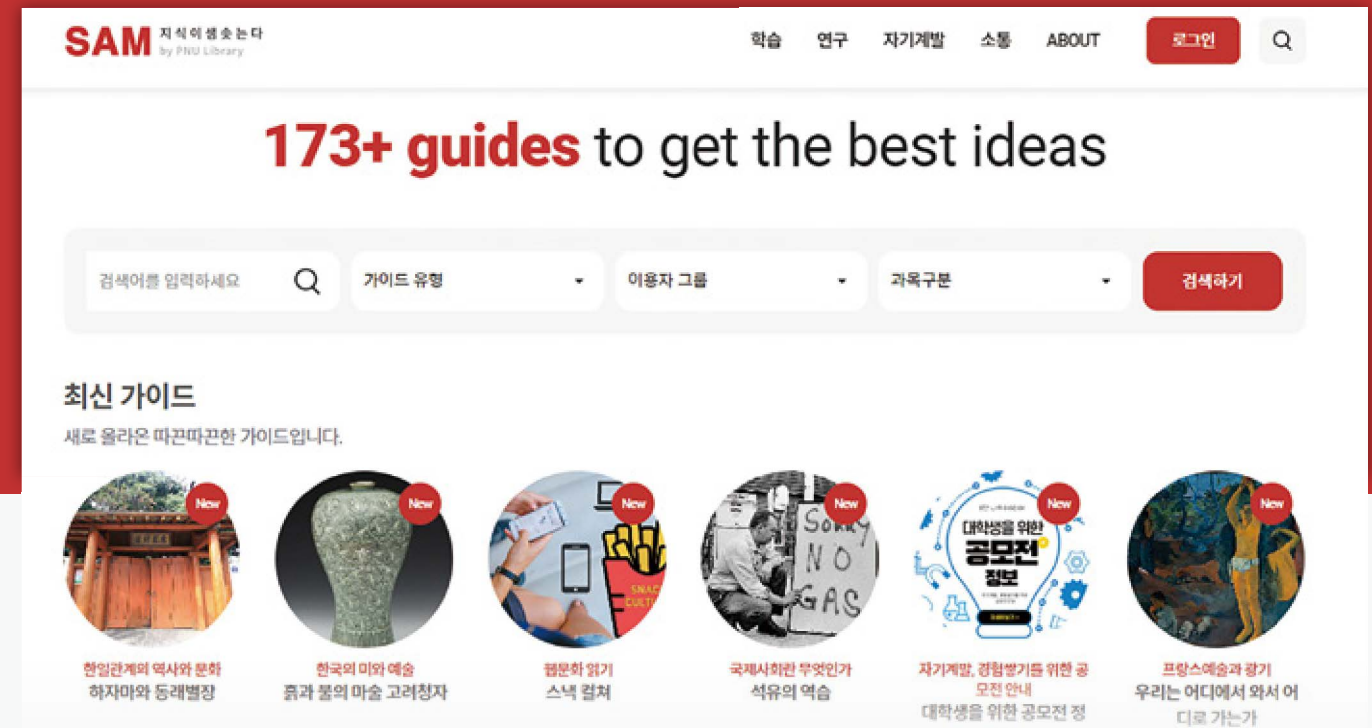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를 위한
도서관 학술자료 활용법 및
연구활동 단계별로 필요한 유용한 정보 제공



자기개발

최근 이슈 관련 교양지식 쌓기, 외국어 배우기,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 소개

아이디어 수집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173개 이상의 최신 가이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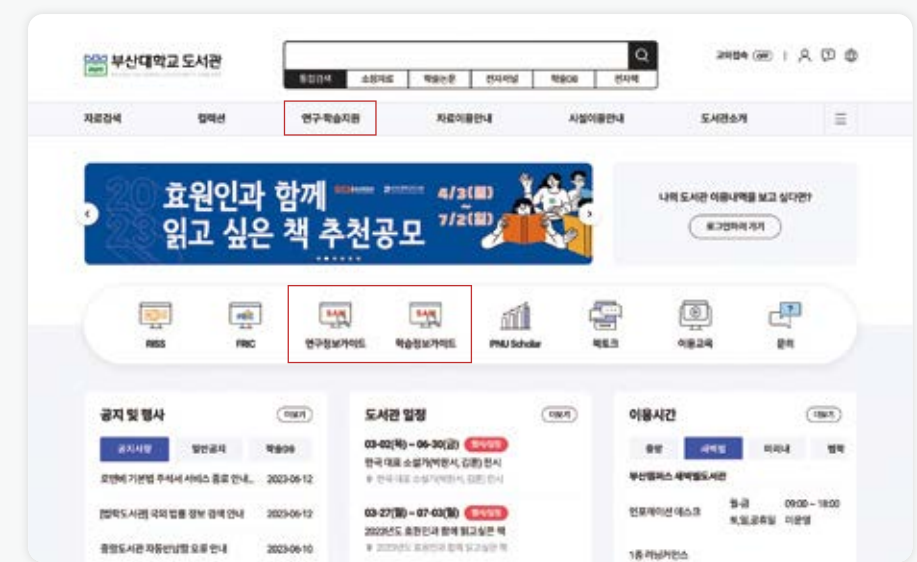
SAM가이드 이용방법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학습지원

학습정보가이드 또는 연구정보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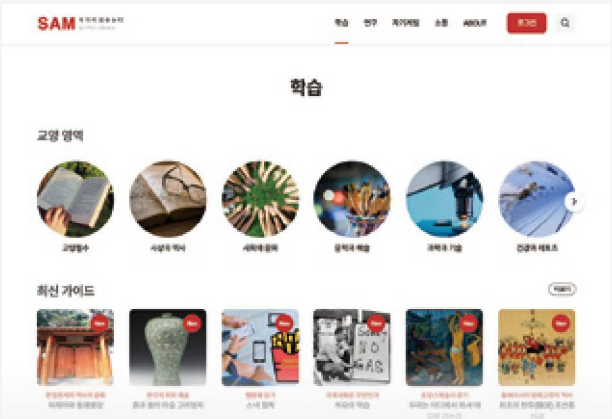
SAM가이드
사이트 바로가기



 학습

학습에서는 교양필수와 교양선택(1영역~7영역)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에 필요한 가이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부생 서포터즈”와의 협력을 통해 학부생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노하우들을(강의 내용 및 스타일, 과제 및 시험정보 등) 요약하여 알려주고 교재, 참고도서, 사이트, 영상 등 다양한 관련 자료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TIP 추천 교양과목이 궁금한 학부생, 과목의 과제와 시험비율과 같은 상세 내용이 알고 싶은 학부생은 SAM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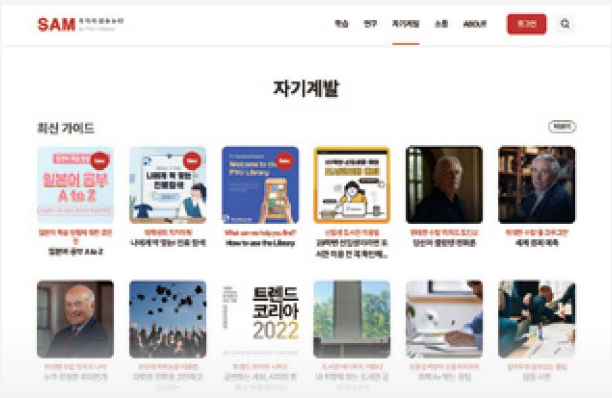


 연구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가이드를 연구 단계(연구정보 수집 및 관리-논문 작성-출판 및 공유-연구성과 분석)별로 나누어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연구 정보 수집 및 관리단계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방법에 관한 가이드를,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연구윤리, 참고문헌 및 학위논문 제출 관련 가이드를 제공한다. 출판 및 공유 단계에서는 투고학술지 추천, 부실학술지 체크리스트 등을 알려주고, 마지막 연구성과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성과 분석 지표, PNU Scholar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자기계발

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자기계발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 지적 성장을 하고 자기계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학습정보 가이드 서포터즈



도서관에서는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학습정보 가이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선발된 학생들이 직접 수강한 교양과목의 귀중한 학습정보를 선·후배, 동기들을 위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양질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서포터즈는 1년에 총2회(학기당 1회) 모집한다.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총 40여명의 회원인들이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3년 1학기 서포터즈로서 활동할 기회를 놓쳤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다가오는 2학기 서포터즈에 도전해보자. 새로운 경험을 통해 부듯한 한 학기가 되리라 자부한다.

예정 2023년도 2학기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 ※ 상기 세부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시기** 2023. 9월
- 모집인원** 부산대학교 학부생 총 40명
- 지원자격** 2023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양수업을 2과목 이상 수강하는 자



SAM 가이드 및 서포터즈 문의 : 도서관 서비스운영팀 ☎ 051-510-1872

도서관 200% 이용하기

연구력 지표 이해와 기본 활용 교육

새내기를 위한 도서관 이용 교육이 한창 이루어지는 3월! 대학본부 3층 대강당에서는 우리 대학의 직원, 연구자, 조교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연구력 지표 이해와 기본 활용 교육」이 진행되었다. 연구력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직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기획한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 박경석 사서를 만났다.



연구력 지표란 무엇인가요?

우선 연구력 지표를 말하기 전에 연구성과와 동향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성과 분석은 한 기관이나 연구자가 그동안 이루어낸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방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연구력 지표는 연구성과와 연구동향 분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Impact Factor, 논문 피인용도, FWCI, Eigenfactor Score, CiteScore 등 과 같은 연구력 지표를 통해 흔히들 말하는 논문과 저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연구성과와 동향 분석의 주된 목적은 우리 대학의 연구현황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원과 정책을 입안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와 관련된 분석이 정책 및 재정지원으로 이어 지려면 도서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하고 있는 연구성과와 동향 분석 서비스를 알리고, 유관 부서의 연구력 지표 실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력 지표는 QS, THE 세계대학평가, 교수 승진·임용, 학과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연구력 지표가 익숙 하지 않은 실무자에게는 교육을 통해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교육과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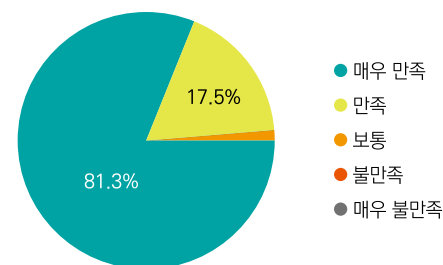
참가했던 직무 관련 교육과 세미나는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논문, 저널, 인용 색인 DB 등 기본적인 개념은 뛰어넘고 이를 활용하는 교육부터 듣다 보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연구지표 활용까지 알려드리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교육 후에 수강생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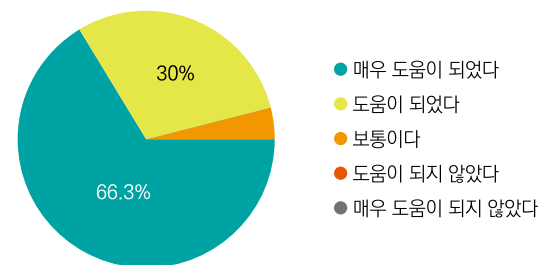
교무과, 기획평가과, 연구진흥과, 전략사업실, 대학원 혁신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총 120명이 수강 했고 80명이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는데 만족 이상이 98.8%(매우 만족 81.3%, 만족 17.5%)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실무 중심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실제 행정부서의 공문에서 활용되는 연구력 지표를 예시로 설명하였고, 응답자의 96.3%(매우 도움 66.3%, 도움 30%)가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종합만족도) 이번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응답 80개



(실무활용성) 이번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나요? 응답 80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월에 기본교육을 했으니 9월에 한 번 더 기본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월과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심화교육에서는 연구성과 분석과 동향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본과 심화교육에 모두 참여하신 기관에서는 맞춤형 컨설팅 요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성과와 동향의 현황 분석을 넘어 연구 지원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도서관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학내구성원들의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 1 교육내용
저널과 논문 평가지표의 구분(I/F, 피인용 수, ES, FWCI 등)
인용색인별 평가지표의 차이(SCI급, Scopus, KCI)
인용색인 DB(WoS, Scopus)의 이해와 논문(저널) 확인 방법
PNU Scholar를 활용한 연구력 지표 확인 방법
업적평가에 활용되는 JCR 적용연도 및 상위% 확인 방법
JCR vs JCI, Percent(%) vs Percentile(%ile) 구분

책 읽는 대학

Book
Talk
알아보기

What is the 북토크?

정보 풍요의 시대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본인들의 생각, 가치관 등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정보 소통 방식의 변화에 발 맞춘 서비스를 고민 하였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북토크(Book Talk)를 만들게 되었다.

SNS 형태의 플랫폼인 북토크(Book Talk)에서는 같은 집단 구성원들이 요즘은 어떤 책을 읽는지, 그 책을 읽고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등을 소통하고 같은 관심사, 독서 취향 등을 가진 이용자와 그룹을 만들어 활동할 수도 있다.

What's the direction of the 북토크?

북토크는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대학 도서관 까지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각 대학 간의 소통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3년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가 참여하여 총 4개 대학에서 북토크를 운영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짧게나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평으로 작성해보자.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북토크 아이콘을 누르거나 소장자료 검색 시 상세정보 하단에서 서평을 작성하고 확인 할 수 있다.

서평이 가장 많이 작성된 도서 Top 3

우리 대학 도서관의 북토크 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총 4,331권의 도서에 6,335개의 서평이 작성되었다. 그 중 서평이 가장 많이 작성된 도서 3권을 뽑아보았다.

Top3 책들이 흥미로워 보인다면 지금 당장 도서관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 보고 북토크에 본인의 서평을 남겨보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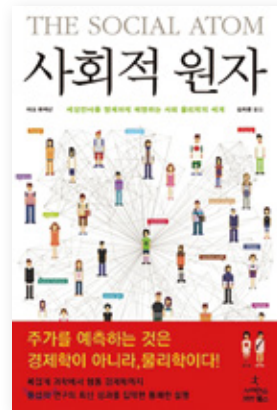
저자 김애란
출판 문학동네



변신

(일러스트와 함께 읽는 세계명작)

저자 프란츠 카프카
출판 문학동네



사회적 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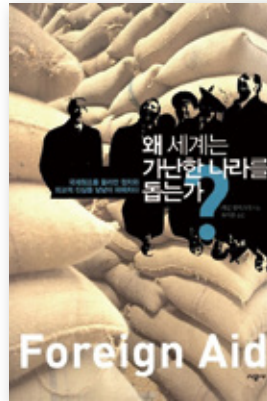
세상만사를 명쾌하게
해명하는 사회 물리학의 세계

저자 마크 뷰캐넌
출판 사이언스북스



♥를 가장 많이 받은 서평 Top 3

북토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쓴 서평을 보고 여느 SNS와 같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길 수도 있다. 지면상의 관계로 서평 전체를 실을 수는 없지만 북토크에 가서 서평을 검색한다면 서평의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서평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북토크에 접속!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저자 캐럴 랭커스터 / 출판 시공사

개발협력, ODA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왜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할까?"(실제 원제는 Foreign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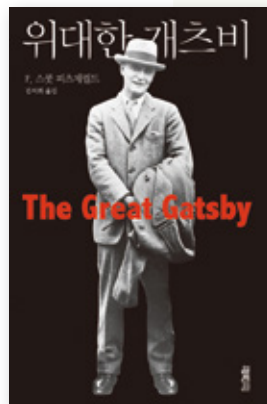
이 (번역된) 질문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외원조 역사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직접적인 대답 보다는 원조의 역사를 살펴보며, 그 답을 함께 논의해보는 식이다.

'개발학'이라는 분야의 시작이 식민지의 착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영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조금 쓸쓸하게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가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인 것처럼, 이제는 공여국과 수혜국 사이의 기울어지지 않은 관계를 강조하니 조금은 걱정이 놓이긴 한다. 또 한편으로 과연 근대화, 현대화만이 개발의 최종 목표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기근, 질병 등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만 하지만 공여국 나라의 국가체계, 인프라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는 고민해 볼 만한 일이다. 대외 원조,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 국제협력 등에 관심이 많다면 기본 지식을 위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정말 사실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사실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서.. 읽다가 조금은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의 개략적인 역사와 주요 나라별 역사와 예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알짜배기인 책이다.

바깥은 여름
저자 김애란 / 출판 문학동네

비행운, 두근두근 내 인생 등 워낙 유명한 작가인 김애란 작가의 신작이라 그래서 바로 읽게 되었다. 7개의 단편이 모인 소설집으로 크게 히트를 친 비행운 이후 5년 만에 내는 작품이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작품<입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이 나온다. 부부의 일상을 따라가며 독자로 하여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 돌려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만든다. 입동 중 가장 뇌리에 박힌 문장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저자 Fitzgerald, F. Scott / 출판 열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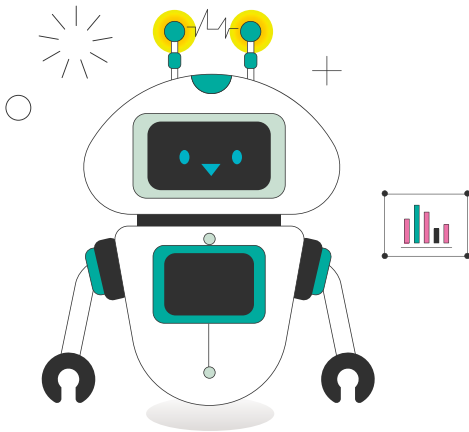
왜 '위대한' 개츠비일까요?

책 내용을 전혀 알지못했고, 딱 생각나는 장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와인잔을 들고 파티를 만끽하는 장면... 그래서 개츠비라는 인물의 성공기를 그린 작품인 줄 알고 있었다. 실상은 그저 어리석고 안쓰러운 개츠비였다.

사실 초반에는... 내 기대? 예상?과는 다른 내용 전개에 조금 지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인물간의 관계와 서사, 구조 등이 내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재밌어졌다. 단순 성공기처럼 한 인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엿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책의 장르는 분명한 로맨스고 치정물이다.



Chat GPT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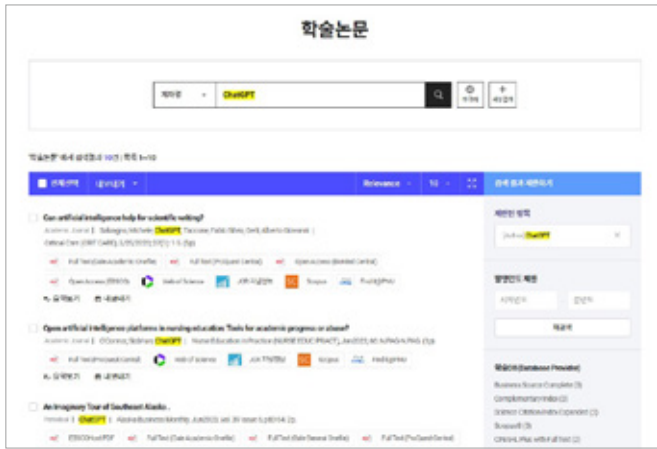
Open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답변을 해주고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간다. 챗GPT는 질문의 답변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 콘텐츠 제작, 언어 번역 및 교정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Open AI는 GPT-3.5 보다 더 똑똑해진 GPT-4.0을 공개했으며, 각종 기업과 산업에서 챗GP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챗GPT!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까. 도서관에서 먼저 만나보자!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챗GPT’를 검색하면 도서, 전자책, 학술논문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챗GPT에 대한 수많은 도서와 논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중 챗GPT가 저자인 자료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국·내외 논문은 도서관이 구독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논문을 검색했을 때 PDF 아이콘이 있다면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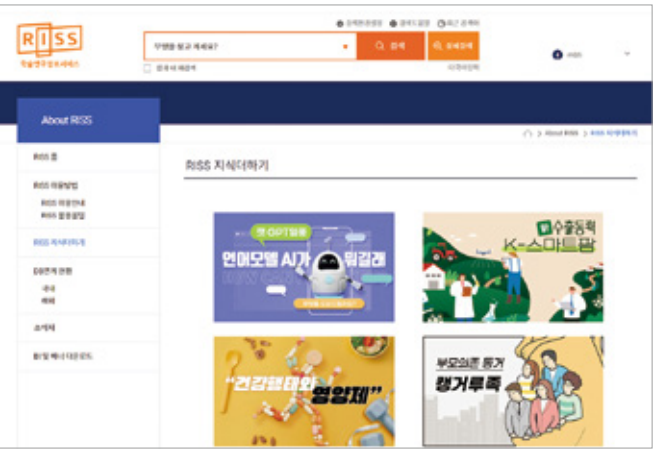


챗GPT가 저자인 학술논문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지식더하기’에서는 ‘챗GPT 열풍, 언어모델 AI가 뭐길래’라는 주제로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생성 모델 분석, 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등 여러 분야의 논문 10건을 읽을 수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RISS에 접속하면 논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RISS 지식더하기 화면

+ 챗GPT, 일상에 활용하다



진짜 챗GPT 활용법 : 액셀 활용법부터 블로그 자동화, 유튜브 콘텐츠 생성, 미드저니와 ChatGPT API 사용법까지

김준성, 유원준, 안상준 지음 | 위키북스 | 2023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006.3 김77ㄷ

챗GPT의 원리 및 기본 사용법부터 블로그, 영상 제작, 업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진짜 활용법을 담았다. 챗GPT를 활용해 1분 만에 블로그를 작성하는 방법, 챗GPT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픽토리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챗GPT를 영어 공부, 면접 준비, 프로그래밍 공부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챗GPT 활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챗GPT와 글쓰기 : ChatGPT와 함께하는 AI 글쓰기 실천

김철수 지음 | 위키북스 | 2023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 단행본 |
LDM 808.066 김813ㄷ

챗GPT가 글쓰기의 혁명을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글을 써왔다. 하지만 챗GPT의 등장으로 이제 그렇게 글을 쓰는 시대는 끝났다. AI가 글을 써주는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챗GPT와 같은 AI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사람의 글쓰기와는 뭐가 다른지, 사람은 AI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AI보다 더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지 소개한다.

+ 챗GPT, 미래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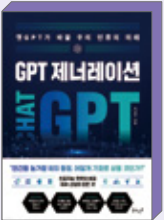


챗GPT 거대한 전환 : AI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김수민, 백선환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 2023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 단행본 |
HDM 303.4833 김57ㄷ

챗GPT라는 서비스와 그 배경 기술인 생성형 AI의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현재 생성형 AI를 두고 벌어지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쟁과 앞으로 AI가 바꾸어 나갈 산업과 시장의 미래를 분석하는 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IT 기업들을 지원하며 업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아마존(AWS),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 두 기업의 현재 AI 전문가가 집필한 책으로,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50개 이상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소개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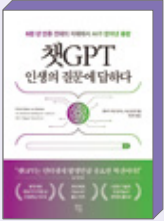
GPT 제너레이션 : 챗GPT가 바꿀 우리 인류의 미래

이시한 지음 | 북모먼트 | 2023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 단행본 |
HDM 303.49 이59ㄷA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신기술 챗GPT, 드디어 세상에 없던 산업이 등장하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가진 고유한 기술과 능력을 잃게 될 거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챗GPT는 확장형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형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점에서 챗GPT는 우리가 속히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할 단 하나의 기술이다. 이전에는 실현될 수 없었던 신산업과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며, 인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챗GPT, 질문에 답하다



챗GPT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 : 6천 년 인류 전체의 지혜에서 AI가 찾아낸 통찰

챗GPT, 이안 토머스, 재스민 왕 지음 | 이경식 번역 |
현대지성 | 2023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 단행본 |
HDM 128 W246w한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질문을 탐구하면서 성경, 도덕경에서부터 루미와 사포의 시는 물론, 현대 신비주의자들의 지혜에도 눈길을 돌렸다. 이 모든 저작에 담긴 지혜를 오늘날 가장 발달한 인공지능 챗GPT가 통합적으로 이해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가장 빛나는 지혜를 몽땅 습득한 챗GPT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194개를 던졌고 챗GPT가 이에 답했다.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 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과의 대화

김대식, 챗GPT 지음 | 김민정, 권태형, 유병진, 유지운, 추서연 번역 |
동아시아 | 2023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 단행본 |
HDM 303.49 김222,한

챗GPT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작동원리를 설명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사랑이나 정의, 죽음, 신 등 사람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온갖 자료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나간다. 프롤로그에서 에필로그까지 책의 모든 콘텐츠를 챗GPT와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저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부족한 부분을 찌르면서 이야기를 촉발시킨다. 흔히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생성인공지능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AI와 대화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부산의 이야기가 담긴
일상이 문화가 되는
원도심 복합문화공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부산 대청동의 옛 한국은행과 미국문화원이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재탄생하여
시민의 힐링플레이스로 변신하는 중이다.

미국문화원 건물은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2023년 3월 개관하였고,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은 보강공사를 거쳐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으로 2023년 연말 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기념하여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새롭게 돌아온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1929년 건립된 서구양식 건축물로 일제 강점기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광복 이후에는 50년간 미국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재탄생하면서 부산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별관 1층 대청서가는 도서 열람과 아카이브 검색이 가능한 공간으로 현재 부산 근현대사 관련 도서 등 1만여권의 소장 도서와 아카이브 자료를 갖추고 있다.

건물 내부의 둥근 기둥은 실제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신축 당시 설치된 기둥으로 건물 내진성 강화를 위해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법이 사용되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아치형 나무터널. 터널을 통해 부산의 역사속으로 함께 걸어들어가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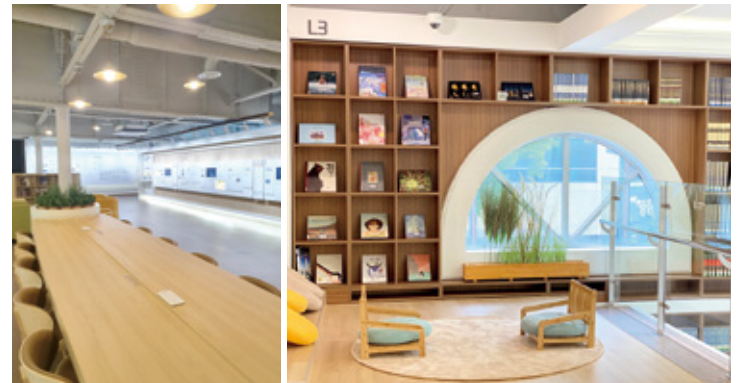
특별서가에는 '부산의 책-시대의 감정, 지역의 얼굴'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전시를 6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되는 전시 정보는 부산근현대역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피란수도 부산' 관련 회귀본 40종이 최초로 공개되며 1950년대 책과 잡지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풍경과 문화지형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열람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책놀이터 시설, 물품보관함 등이 있어 부산 시민은 물론 여행객에게도 부산을 알아가는 좋은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



별관 2층 대청마루는 도서 열람공간과 함께 건물의 역사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은 누구나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부산의 옛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에 방문하여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09:00~18:00
- ◆ 휴 관 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 주 소 : 부산 중구 대청로 104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시선 집중

도서관의 날

2023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에서 18일 까지를 ‘도서관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도서관들과 함께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왔다.

2022년 12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4월 12일이 ‘도서관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도서관의 날’은 책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워내고 국민적 관심과 화합을 이루어 도서관이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기념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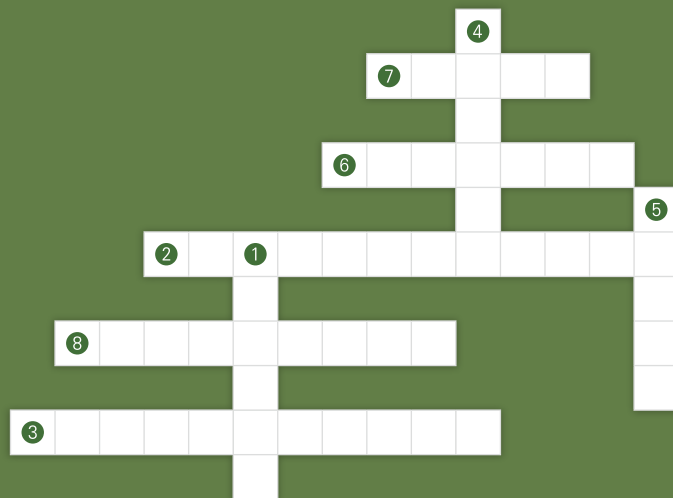
‘제1회 도서관의 날’ 기념식은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하였다.

올해 도서관 주간에는 ‘어둠을 밝히는 도서관’을 주제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도 ‘제1회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며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촬영하여 #부산대학교도서관_제1회도서관의 날 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날말퀴즈

- 1 미리내열람실 ‘아카데미아’는 고대 그리스 최초의 학교였던 ○○○○○○에서 차용했다.
- 2 ‘모두를 위한 책 특별전’은 ○○○○○○○○○○○○의 국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 3 도서관에서는 학부생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매 학기별로 ‘이것’을 운영 중에 있다.
- 4 연구력 지표는 Impact Factor, ○○○○○○, FWCI, Eigenfactor Score, CiteScore 등이 있다.
- 5 마크 뷰캐년이 저술하였으며, 우리 대학 북토크에서 세 번째로 서평이 가장 많이 작성된 도서는?
- 6 최근 화제가 된 챗GPT는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7 최근 리모델링 개관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은 광복 이후 50년 가량 ○○○○○○으로 사용되었다.
- 8 5월 18일 개최된 박종근 박사 문고 설치기념 학술행사 2부에서는 ‘이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나의 삶과 치유로서의 시 - ‘세상의 모든 시학’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세상의 모든 시학〉이 2023년에는 ‘나의 삶과 치유로서의 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 진행한다.

1학기에는 제54강(3월 24일) 시의 언어와 살아갈 힘을 생각하며(안찬수 시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제55강(4월 21일) 봄의 정원으로 오라(권은영 교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56강(5월 26일) 시름과 설움을 보듬는 사랑, 시(허은실 시인)의 주제로 세 번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시를 통해 힘을 얻으며 봄의 정원 속에서 거문고 연주를 감상하고, 뜻밖의 플루트 연주도 즐기며 1학기를 마무리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2학기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제57강(9월 22일) 시詩, 악樂에 깃들다(류창희 수필가), 제58강(10월 27일) 한시와 마음의 치유(김승룡 교수,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등 총 네 번의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12월 8일에 개최되는 2023년 마지막 강의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상의 모든 시학은 대학 구성원부터 지역주민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학부생은 비교과 마일리지 지급, 교직원들은 상시학습 시간 인정 혜택도 주어진다.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학기 강좌 신청이 뜬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 버튼을 클릭해 시와 예술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잠시나마 문학적 감상을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박종근 박사 문고 설치 11주년 기념 학술행사

[모-던 타임즈: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읽는 한국 근대]



중앙도서관 2층에는 2012년 우파장학회 설립자인 (故)최영석 회장이 (故) 박종근 박사의 자료 총 8,477권을 기증하여 설치된 〈박종근 박사 문고〉가 있다.

〈박종근 박사 문고〉설치 1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행사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새벽별도서관 1층 러닝커먼스에서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학술세미나는 〈박종근 박사 문고〉의 자료적 가치를 되돌아보는 국어국문학과 이재봉 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문고에 소장된 자료 ‘조선신보’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국역〉조선신보’를 출판한 한문학과 권정원 교수와 일어일문학과 김소영 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이재봉

교수와 함께 영화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일교포 여류 감독 양영희의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감상하고 재일 동포가 겪는 이데올로기 비극과 제주 4·3 생존희생자인 감독의 어머니 개인과 그 가족의 인생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아픔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며 학술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역사의식을 환기하고 〈박종근 박사 문고〉자료의 가치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